

생산자조직 단위 친환경농업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

김 호**

A Case Study on Management Situations of Environment-friendly Farming of a Producers' Organization

Kim, Ho

This case study surveyed management situation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EFF) producers' organization and their main activities. Farmers are aging as an average age of 55-year old and producing fruit-bearing vegetables. The EFF did not increase farmer's income, however, price and income was stabilized more than that of conventional farming because of contract farming. Farm household liabilities are caused by purchasing agricultural machinery, materials and so on. Farmers of EFF have been also cultivating conventional farming, but they don't plan much conversion intention of conventional farming into EFF owing to lack of differentiated and stable market for their EFF products. And they are guessing that EFF income will increase a little. For increasing of EFF income, they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reduce production cost, produce high quality production, develop processing foods, enlarge contract farming and so on.

Key words :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EFF), management situation, income, price, production cost*

I. 서 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2009년 약 236만 톤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0년부터 저농약재배의 추가인증 중단과 2015년 폐지, 기후변화에 의한 생산 불안정, 친환경농가의 소득 정체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3년 말 현재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약 118만 톤으로서 5년 사이에 약 49.9%나 감소되었다.

* 이 연구는 2013년도 단국대학교 연구년 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단국대학교 교수(hokim@dankook.ac.kr)

그리고 친환경농가는 관행농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소극적이며, 소득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 아니다. 생협 등 소비자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에서도 출하가격이 정체되어 있으며, 출하처도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다. 생협과 직거래의 장점으로서는 가격 및 소득의 안정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계약재배에 의한 물량과 가격이 미리 정해지기 때문이다. 생협을 주요 출하처로 하고 있는 친환경농가는 비교적 높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어 조수입은 증가한다. 하지만, 생산비가 비교적 많이 들고 가격이 정체되어 있어 소득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기술습득 문제와 계약물량의 안정적 공급, 공동마케팅 등을 위해 생산자조직 단위로 경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연구에서는 생산자조직을 설립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경영실태와 소득 및 부채, 생산자조직의 활동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충남의 A군에 설립되어 있으며 생협과 계약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조직이다. 회원농가는 105호이며 이 중 101농가를 면접 청취 조사하였다.

II. 친환경농가의 경영실태 분석

1. 조사대상 친환경농가의 농업경영 특징

조사대상 지역은 충남 A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 30년 전에 생산자조직이 결성되어 생협과 계약재배 방식으로 직거래를 해오고 있다. 2013년 현재 회원 수는 105명이며 이 중 응답자는 101명으로서 응답률은 96.1%이었다. 조사대상 생산자조직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9.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40대로서 24.8%이었다. 평균 연령은 55세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연도별 분포는 2005~2009년 즉, 10년 이하의 농가가 41명(40.6%)로 가장 많고 2010년 이후에 시작한 5년 미만인 친환경농가도 35명(34.6%)이나 되었다. 즉 친환경농업 경력이 10년 미만인 농가가 76호로서 전체의 75.2%를 차지하고 있다(Table 1). 이는 FTA 등 시장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대응,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 소비자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 친환경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은 32,638.0㎡(3.26ha)이고 농지의 임차비율은 37.5%이었다. 이들 친환경농가는 관행농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관행농업 비율은 68.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가 한정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친환경농업의 비율이 큰 품목은 시설재배 농산물이었었는데, 이 지역은 과채류가 주산지이고 또 시설재배 친환경 과채류의 계약재배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다른 품목의 친환경농산물도 계약재배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계약물량이 적어 친환경재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Table 1. Respondents distribution

(unit : person, %)

Item		Frequency	Ratio
Age group	Under 40 years old	8	8.0
	40~49	25	24.8
	50~59	40	39.6
	60~69	19	18.8
	70 years old and over	9	8.9
	Total	101	100.0
Beginning year of environment-friendly farming	Before the year 2000	12	11.9
	2000~2004	13	12.9
	2005~2009	41	40.6
	after the year 2010	35	34.6
	Total	101	100.0

Table 2. Average cultivated area by farming type

(unit : m², %)

Farmland	Conventional	Environment-friendly	Total
Paddy field	5,170 (67.4)	2,502 (32.6)	7,672 (100.0)
Upland	1,261 (59.1)	874 (40.9)	2,135 (100.0)
Greenhouse crop	1,232 (39.3)	1,901 (60.7)	3,133 (100.0)
Orchard	14,572 (76.8)	4,395 (23.2)	18,967 (100.0)
Others	60 (8.2)	671 (91.8)	731 (100.0)
Total	22,295 (68.3)	10,343 (31.7)	32,638 (100.0)

이와 같은 친환경농가의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의사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3과 같다.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34.3%이었고, 전환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49.3%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판로의 문제와 노동력 부족 문제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3. Conversion intention of conventional farming into environment-friendly farming
(unit : person, %)

Item	Sooner or later	After a few years	Status quo	Intention little	Intention never	Total
Freq.	13	10	11	17	16	67
Ratio	19.4	14.9	16.4	25.4	23.9	100.0

한편, 조사대상 생산자의 가축사육 현황은 Table 4와 같다. 한우가 552두 젓소 20두, 기타 17두이었다. 젓소와 기타 가축은 모두 관행축산을 하고 있고, 친환경축산은 한우만 하고 있는데 무항생제 방식으로 338두(61.2%)를 사육하고 있다. 유기축산 방식보다는 무항생제 사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유기 사료비 부담과 유기축산물 가격수준이 높아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식품의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기한우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항생제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Table 4. Livestock heads by breeding type

(unit : head, %)

Breeding type	Korean beef cattle		Dairy cattle		Others	
	Head	Ratio	Head	Ratio	Head	Ratio
Conventional	214	38.8	20	100.0	17	100.0
Non-antibiotics	338	61.2	-	-	-	-
Organic	-	-	-	-	-	-
Total	552	100.0	20	100.0	17	100.0

Table 5. Agricultural machinery holdings

(unit : set, %)

Item	Power tiller	Farm tractor	Rice Transplanter	Combine	Cultivator	Dryer (grains)	Dryer (farm produce)	Others
Freq.	63	65	34	16	79	25	38	3
Ratio	62.4	64.4	33.7	15.8	78.2	24.8	37.6	3.0

* notes : N=101(100.0)

조사대상 농가의 경운기(62.4%)와 트랙터(64.4%), 관리기(78.2%) 등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Table 5). 그런데 벼농사에 필수적인 농기계인 이앙기와 콤바인을 보유하고 있

는 농가비율은 각각 33.7%와 15.8%이었다. 생산자조직에서 모내기 및 수확 시 농기계를 공동이용하거나, 고령농의 벼 작업을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과채류의 생산이 많은 지역이므로 저온저장고의 보유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Table 6). 응답자 101농가 중 65.3%인 66농가는 저온저장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4평 이하의 소규모 저장고는 22농가(21.8%)가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조사대상 지역의 생산자조직이 자체 물류시설을 가지고 있어 농가단위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과채류의 저온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Table 6. Low temperature warehouse

(unit : person, %)

Item	Nothing	4 pyong	5~9 pyong	10~14 pyong	Over 15 pyong	Total
Freq.	66	22	7	2	4	101
Ratio	65.3	21.8	6.9	2.0	4.0	100.0

2. 농가소득 및 부채 실태

조사대상 생산자조직의 연 평균 조수입은 5,816만원이었는데, 농업조수입이 5,370만원으로 92.3%를 차지하고 있고 농외소득은 446만원(7.7%)이었다(Table 7). 2012년의 우리나라 농가 호당 농업조수입은 약 2,759만원이고 농외소득은 약 1,910만원, 기타 이전소득(약 561만원) 및 비경상소득(270만원)은 약 831만원으로서 농가 총 조수입은 약 5,500만원이었다(농식품부, 2013). 조수입 측면에서 보면 조사대상 농가의 조수입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Table 7. Average gross receipts of crop farm household

(unit : person, %)

Item	Gross farm receipts			Non-farm receipts	Total
	Conventional	Environment-friendly	Total		
Receipt	2,016	3,354	5,370	446	5,816
Ratio	34.7	57.7	92.3	7.7	100.0

조사대상 농가의 농업조수입 중 친환경농업 조수입이 3,354만원으로 관행농업 2,016만원에 비해 더 많았다. 그리고 친환경농가의 농외수입은 446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

(7.7%)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Table 2에 나타난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재배면적과 비교해 보면, 전 경지의 관행농업 재배면적(68.3%)이 친환경농업 면적(31.7%)보다 2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입은 더 적었다. 그 이유는 주요 소득작목이 시설재배 과채류인데, 시설재배의 경우에 친환경농업 면적 비율이 60.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친환경 과채류는 생협과 계약재배하고 있어 가격이 비교적 높고 출하물량이 안정적이다.

한편 농가부채는 평균 4,722만원으로 농협과 정부융자가 각각 2,175만원(46.1%)과 2,171만원(4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Table 8). 이러한 농가부채의 원인을 살펴보면 농기계 구입이 28.7%를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저온고 및 창고 등 설치비용으로서 17.8%이었으며 연료나 종자 등 농자재 구입이 16.8%, 농지 매입 및 생활비는 각각 13.9% 등의 순이었다(Table 9).

Table 8. Average farm household liabilities

(unit : 10thousands won, %)

Item	NACF	Bank	Government	Individual	Other	Total
Liabilities	2,175	242	2,171	62	72	4,722
Ratio	46.1	5.1	46.0	1.3	1.5	100.0

Table 9. Major cause for household liabilities

(unit : person, %)

Item	Purchasing agricultural machinery	Building low temperature warehouse	Purchasing agricultural materials	Buying farmland	Living expenses	Constructing house	Total
Freq.	29	18	17	14	14	9	101
Ratio	28.7	17.8	16.8	13.9	13.9	8.9	100.0

Ⅲ. 친환경농업의 소득실태 및 향후 예상과 생산자조직의 활동

1. 가격 및 소득 만족도 및 예상

조사대상 생산자조직의 가격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하는 비율이 41.6%이었고 불만족 비율이 13.9%이었으며, 보통이다 또는 그저 그렇다는 비율이 35.6%를 차지하고 있다(Table 10). 가격만족도를 5점 척도로 계산해보면 3.35로서 약간 높은 편이다.

Table 10. Satisfaction on current price

(unit : person, %)

Item	Frequency	Ratio
Satisfy so much	9	8.9
Satisfy a little	33	32.7
Not so satisfied	36	35.6
Dissatisfy a little	9	8.9
Dissatisfy so much	5	5.0
Non-response	9	8.9
Total	101	100.0

그리고 Table 11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한 이후의 소득 변화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소득이 증가했다는 비율이 37.6%이었고, 변화가 없다는 비율은 36.6%로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비율은 20.8%이었는데, 친환경농업의 소득증대 효과는 기대한 것만큼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Table 13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와 연계하여 판단해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한 후 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Table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산량의 감소(47.6%)와 생산비의 증가(47.6%)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인건비의 증가(33.3%)를 생산비에 포함시키면 약 81.0%로서 친환경농업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Table 11. Income change after environment-friendly farming

(unit : person, %)

Item	Frequency	Ratio
Increased so much	1	1.0
Increased a little	37	36.6
Non-change	37	36.6
Decreased a little	20	19.8
Decreased so much	1	1.0
Non-response	5	5.0
Total	101	100.0

Table 12. Causes for income decrease after environment-friendly farming

(multiple responses)

(unit : person, %)

Item	Frequency	Ratio
Decrease of output	10	47.6
Increase of production cost	10	47.6
Natural disasters	7	33.3
Increase of labor cost	7	33.3
Shortage of labor	3	14.3
Others	5	23.8
Total	42	N=21(100.0)

그래서 Table 13과 같이, 조사대상 생산자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만족한다는 비율이 23.8%인 반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5점 척도로 계산해 보면 2.79로서 가격만족도(3.35)와 소득변화실태(3.18)에 비해 낮았다(Fig. 1). 따라서 소득 감소의 주원인은 가격보다는 생산비 증가 부담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3. Satisfaction on current income

(unit : person, %)

Item	Frequency	Ratio
Satisfy so much	3	3.0
Satisfy a little	21	20.8
Not so satisfied	33	32.7
Dissatisfy a little	31	30.7
Dissatisfy so much	8	7.9
Non-response	5	5.0
Total	1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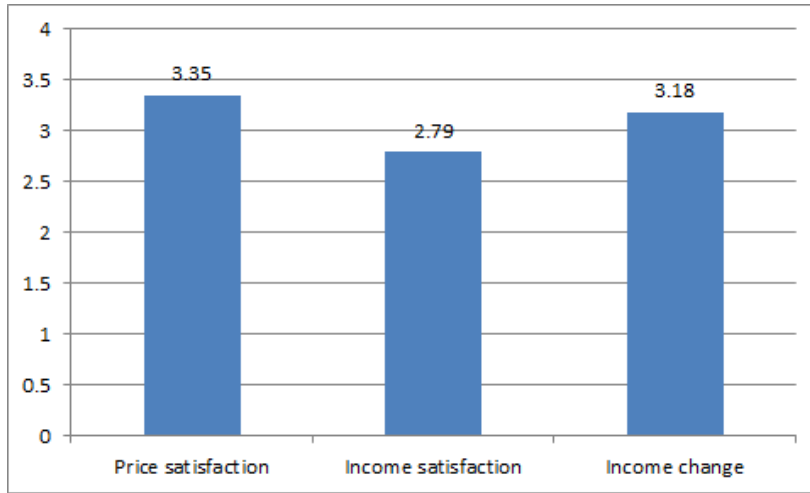


Fig. 1. Satisfaction on current price and income, and Income change

조사대상 생산자는 향후 소득에 대해 대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Table 14).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58.4%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감소할 것이라는 비율은 13.9%이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산비의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각각 31.7%씩), 가공식품의 개발(28.7%), 계약재배의 증가(24.8%)와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22.8%) 등으로 나타났다(Table 15).

친환경농업은 대개 생산비가 많이 들고 겉모양이 좋지 않은 특징을 극복하자는 응답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자조직이 직접 가공을 함으로써 그 부가가치를 소득으로 귀결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학교급식 정책과 로컬푸드 운동에 부응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응답도 11.9%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14. Prospect on income level

(unit : person, %)

Item	Frequency	Ratio
Increase so much	7	6.9
Increase a little	52	51.5
Non-change	25	24.8
Decrease a little	13	12.9
Decrease so much	1	1.0
Non-response	3	3.0
Total	101	100.0

Table 15. Measures for increasing income(multiple responses)

(unit : person, %)

Item	Frequency	Ratio
Reducing production cost	32	31.7
High quality production	32	31.7
Developing processing foods	29	28.7
Increasing contract farming	25	24.8
Changing to high-income crop	23	22.8
Expanding market	16	15.8
Enlarging production area	14	13.9
School lunch and local food	12	11.9
Changing to organic farming	10	9.9
Others	7	6.9
Total	200	N=101(100.0)

2. 생산자조직의 활동

조사대상 생산자들이 자신의 조직이 해야 할 주요 활동으로서 생산 및 출하관리가 46.5%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회원 간 단합 28.7%, 기술교육 27.7%, 소득향상 25.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또 인근 농가의 친환경농업 도입과 생산자조직 활동 지원이 각각 17.8%와 15.8%이었다(Table 16).

친환경농산물 판매 증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고 다수 생산자의 출하물류비용의 절감이 과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 등을 생물학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생산의 특성으로 인해 생산기술의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생산자조직은 회원 간의 기술교류와 지도를 통해 조직 내에서 이러한 기술교육이 가능하다.

한편 생산자조직이 강화해야 할 교육으로서는 친환경농업 기술교육(48.5%), 유기농업이념 교육(26.7%)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Table 17). 그리고 농업경영 교육과 마을공동체 교육도 각각 18.8%씩 이었다. 친환경농업에 있어 기술교육은 항상 중요한 과제이며, 친환경농업의 관행화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기농업의 철학과 정신의 재충전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해 필수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Table 16. Necessary activities of producers' organization(multiple responses)

(unit : person, %)

Item	Frequency	Ratio
Managing production and shipment	47	46.5
Harmonizing members	29	28.7
Technology education	28	27.7
Income raising	26	25.7
Introducing EFF of neighbor farmers	18	17.8
Supporting organization activities	16	15.8
Interacting urban-rural resident	12	11.9
Realizing organic farming philosophy	12	11.9
Others	2	2.0
Total	190	N=101(100.0)

Table 17. Necessary education of producers' organization(multiple responses)

(unit : person, %)

Item	Frequency	Ratio
EFF technology	49	48.5
Organic farming philosophy	27	26.7
Agricultural management	19	18.8
Rural village community	19	18.8
Agricultural policy of government	12	11.9
Others	8	7.9
Total	134	N=101(100.0)

Table 18를 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생산자의 애로사항은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49.5%)와 병해충 관리의 어려움(43.6%) 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화학적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생산비용의 과다(29.7%)와 생산량의 불안정성(26.7%) 등도 이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다. 가격조정의 어려움(26.7%)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에서 소비자조직과의 가격 협의에서 나타나는 생산자조직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8. Difficulties of EFF producers(multiple responses)

(unit : person, %)

Item	Frequency	Ratio
Insufficiency and aging of labor	50	49.5
Disease and insect management	44	43.6
High production cost	30	29.7
Price adjustment	27	26.7
Output instability	27	26.7
Many meetings	17	16.8
Lack of organic farming philosophy	9	8.9
Water purity control	8	7.9
Others	8	7.9
Total	220	N=101(100.0)

IV. 시사점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10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충남 A군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경영실태와 소득, 생산자조직의 활동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 생산자조직의 평균연령은 약 55세이고, 40대 이하가 32.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자조직은 비교적 젊은 농업인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드는 시설재배 과채류를 주 생산품목으로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은 노동력이 많이 들고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과다하여 농업 노동력이 고령화될수록 시설재배는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작업의 기계화 부분이 많아 노동력이 적게 드는 수도작의 친환경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다른 품목 및 재배방식에 비해 시설재배의 조수입은 많다. 그러나 노동력이 많이 들고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한 생산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는 가족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또 생산자조직의 회원 간 노동교환(품앗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산자조직 내에서 농기계를 공동이용하거나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공동 농작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조사대상 지역 생산자의 관행농업 비율(평균 68.3%)이 높고 농지 임차비율(37.5%)

도 높은 편이다. 그리고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데 소극적인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행농업 경지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판로의 확대에 주력하여야 한다. 이 생산자조직은 생협 등 소비자조직과 계약재배 방식으로 직거래를 하고 있어 계약물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등 급식 판로와 로컬푸드 매장 공급, 가공식품의 개발 등을 통해 자체 판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논밭 등을 합하여 평균적으로 관행농업 경지면적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입은 친환경농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재배 친환경농업 면적이 넓고,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우위성 때문이다. 조사결과에서도 친환경농산물 가격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41.6%로서 불만족 비율 13.9%보다 더 높았다. 이를 소득증가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했다는 비율은 37.6%이고 감소했다는 비율은 20.8%로서 가격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판로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면적의 확대와 생산비 절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생산자조직의 회원은 생산 및 출하관리, 기술교육, 유기농업 이념 교육, 노동력 부족 해결방법 등을 원하고 있다. 생산자의 75.2%가 친환경농업 경력 10년 미만이므로 기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평균연령이 타 농업지역보다 낮아 친환경농업에 대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농업의 철학 및 정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술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차별화된 판로의 확보도 친환경농업의 확대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 및 공공기관과 기업 급식시장의 규모는 매우 크므로 친환경급식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식재료 가격차액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의 식생활 패턴이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고, 친환경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유기가공식품의 개발 공급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유기가공식품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는 원료농산물의 지속적 확보 및 구입가격 부담의 저하 등이다. 따라서 가공용 종자의 개발과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가공용 유기농산물 생산에 대한 직접 보조나 생산자조직(단체)을 통한 계약재배 및 수매, 생산자조직이 원료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논문접수일 : 2014. 5. 15. 논문수정일 : 2014. 6. 3. 최종논문접수일 : 2014. 6. 12.]

Reference

1. Kim, H. and S. T. Kim. 2012. Establishing a Crop System of Organic Farming for Maximizing Agricultural Income. *Korean J. Organic Agric.* 20(2): 143-159
2. Kim, H. 2013. A Case Study on Management Situations of Environment-friendly Farming and Its Implications. *Korean J. Organic Agric.* 21(3): 321-334
3.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omepage. <http://www.kostat.go.kr>
4. MAFRA. 2012.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tatistical Yearbook.